



히어로즈 출신 다카쓰 감독의 응원 (야쿠르트)

“히어로즈 성적 늘 관심 한국야구 넘버 원 되길”



다카쓰 신고 감독

일본프로야구(NPB) 다카쓰 신고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스 감독(51)은 NPB 무대에서만 통산 286세이브를 따낸 특급 마무리 투수 출신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MLB), 대만프로야구(CPBL), 그리고 KBO리그까지 4개 국가의 프로 무대를 모두 경험한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대마신’으로 불리던 사사키 가즈히로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미·일 통산 300세이브를 기록했을 정도로 화려한 경력 시절을 보냈다.

두산 베어스와 한국시리즈(KS·7전4선승제)를 치르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에게 다카쓰 감독은 특별한 존재다. 여우곡절이 많았던 창단 첫째(2008시즌)를 함께 보냈기에 더욱 그렇다. 다카쓰 감독은 그해 6월부터 합류해 18경기에서 1승8세이브, 평균자책점 0.86(21이닝 2자책점)의 성적을 거뒀는데, 부진한 팀 성적 탓에(50승76패·7위)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아낌없이 보여줬다. 당시 히어로즈 감독이었던 이광환 KBO 육성위원장은 “선수 생활 막바지에 재기를 위해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난다”고 돌아보며 “야쿠르트 감독으로 부임한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호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후 KBO리그를 떠나 대만(싱농 볼스·현 푸방 가디언스)과 일본 독립리그(니가타 알비렉스 BC)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운 뒤 2013년에는 해설가로 일하며 시야를 넓혔다. 2014년부터는 친정팀 야쿠르트로 복귀해 2군 투수코치와 2군 감독을 맡으며 지도자 수업을 받았고, 2019시즌이 끝난 뒤 1군 감독으로 취임했다. 일본인 사상 첫 KBO 리그 선수 출신 감독으로 국내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스포츠동아는 야쿠르트 구단을 통해 다카쓰 감독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본 사이타마현 토다구장에서 마무리훈련을 지휘하는 와중에도 흔쾌히 요청에 응했다. 지금도 히어로즈 구단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는 듯했다. 다카쓰 감독의 메시지를 편지 형식으로 정리했다.

“히어로즈 선수단 여러분, 야쿠르트 스왈로스 감독 다카쓰입니다. 제가 팀에 몸담았던 이후에도 히어로즈 구단의 성적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늘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을 확인하고 있는데, 올해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을 보며 그만큼 기대도 컸습니다. 여기까지(KS)은 이상 한국 프로야구의 ‘넘버 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세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강산 기자

“He dropped the ball”...어김없이 가을야구 위협하는 ‘클러치 에러’

악! 빅게임을 말아먹는 ‘가을의 악마’

PS 단기전 황당한 실책이 승부좌우
김하성 어이없는 ‘만세쇼’ 패배자초
과거 김성현·김성욱·김민식도 악몽
가을야구는 클러치 에러를 먹고산다

가을야구 승부처에 나오는 실책은 유독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공 하나의 결과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서 ‘클러치 에러’는 팀들이 가장 경계하는 대상이다.

“He dropped the ball”은 메이저리그 중계에서 나온 ‘명대사’다. 2009년 뉴욕 메츠와 뉴욕 양키스의 인터리그 맞대결에서 메츠 2루수 루이스 카스티요가 9회 평범한 내야 플라이를 놓쳐 양키스에게 끝내기 역전 패배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중계진이 카스티요가 공을 놓치는 장면을 설명한 말이 이후 클러치 에러를 지칭하는 대표적 표현이 됐다.

2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KS) 1차전에서도 치명적인 실책이 나왔다. 양 팀이 6-6으로 팽팽히 맞선 9회에 키움 유격수 김하성이 선두타자 박건우의 평범한 플라이를 잡지 못했다. 선두타자 출루로 두산은 계속 찬스를 이어갔고, 1사 만루 상황에서 오재일의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챙겼다. 키움으로서는 실책이 팀 패배로 연결되는 최악의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기선제압에 성공한 두산은 1차전 승리로 KS 우승확률 74.3%를 잡았다.

이번 사례 외에도 가을야구 클러치 에러는 거의 매년 등장했다. 2015년 SK 와이번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KBO 최초 와일드카드(WC) 결정전에서는 SK 내야수 김성현이 역시 내야 플라이를 놓쳐 끝내기 실점을 내줬고, 팀은 준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2016년 NC 다이노스와 두산의 KS 1차전에서는 NC 외야수 김성욱이 연장 11회에 타구 방향을 놓쳐 선행주자와 타



단기전에서 실책은 치명적이다. 점전 상황, 경기 후반부라면 더욱 그렇다. 2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S 1차전에서도 끝내기 패배를 부르는 최악의 실책이 나왔다. 키움 유격수 김하성(왼쪽)이 9회말 선두타자 박건우의 평범한 플라이 타구를 잡지 못한 채 그라운드로 떨어뜨리고 있다. **잠실 | 뉴스1**

자주자를 진루시켰고, 이후 어김없이 적시타를 허용해 끝내기 패배를 당했다.

2018년 KIA 타이거즈와 넥센의 WC 결정전에서는 KIA 포수 김민식이 5회 이징후의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된 공을 못 잡아 파울처리해 줬고, 이후 다시 기회를 잡은 이징후가 희생플라이를 쳤다.

이는 선발투수 양현종이 흔들리고 결국 역전의 발みが 되고 말았다.

1분 1초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펼쳐지는 가을야구는 이제까지 ‘클러치 에러’를 발판 삼아 역사가 만들어졌다. 특히 7전4선승제의 긴 승부를 해야 하는 KS에서는 실책이 더욱 뼈아프게 느껴진

다. 자칫 시리즈가 순식간에 넘어갈 수도 있어 적극적으로 경계를 해야 한다. 세월이 지나도 영원히 야구팬들의 머리 속에 각인되는 최악의 장면. 최고의 무대에서만큼은 누구도 떠올리기 싫은 시나리오다.

잠실 |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타올보다 타구 질”...키움 이철진 팀장의 신념

(전력분석팀장)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히어로즈로
“올 가을 기적을 위해 더 노력할것”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통계 기반 운영 시스템을 다룬 영화 ‘머니볼’은 빌리 빈 단장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명작이다. 작품에는 빈 단장의 오른팔로 피터 브랜드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야구인 출신이 아닌 숫자에 미친 꼬까지만 빈 단장은 그의 능력을 높게 사고 중용한다. 피터는 실존 인물인 폴 디포디스타에서 영감을 받은 캐릭터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출신의 디포디스타는 오클랜드 부단장을 거쳐 LA

다저스 단장, 뉴욕 메츠 부단장 등을 지낸 뒤 현재 미국프로풋볼(NFL)에서 활약 중이다.

‘한국판 머니볼’을 주도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에도 디포디스타와 비슷한 인물이 있다. 주인공은 이철진 전력분석팀장(34)이다. 이 팀장은 명문대 경제학과 졸업 후 삼성경제연구소에 입사하며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다. 하지만 어딘가 허전함을 채우지 못했다. 그때 이 팀장의 아버지는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꼭 관련 업무를 할 필요는 없다. 네 심장이 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집 근처 목동야구장에서 히어로즈의 야구를 매일 같이 ‘직관’했



이철진 팀장

던 그의 선택은 야구단 입사였다.

물론 키움은 비야구인의 담론에 상대적으로 열린 구단이다. 하지만 낯선 ‘숫자쟁이’였던 이 팀장은 기록이나 숫자대신 마음으로 팀에 다가갔다. 2014년 말 입사해 국제업무를 맡았던 그는 훈련 후 불을 쬐는 것부터 집을 나르는 것까지 팀의 모든 일에 함께 했다.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영

역이 아니었지만 선수단과 심리적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키움의 전력분석팀은 타올을 크게 참고하지 않는다. 가령 A투수와 B타자의 상대전적이 8타수 무안타라고 가정할 때, 잘맞은 타구가 불운하게 정면으로 가거나 호수비에 잡힌 게 4개라면 실제로는 8타수 4안타라고 상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8타수 4안타의 경우가 모두 ‘행운의 안타’라도 표본으로서 가치가 낮다고 본다. 대신 OPS(출루율+장타율), 삼진율, 타구 질을 면밀히 살펴 최적의 매치업을 뽑는다. 이 팀장은 23일 “예측이 맞아 팀 승리 확률을 높일 때의 쾌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올 가을 히어로즈의 기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잠실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배영수 “두산 유니폼 입고 KS…상상도 못했죠”

삼성에서 7회 우승 경험 ‘큰 힘’

두산 베어스 배영수(38)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다. 오랫동안 KBO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로 활약했던 만큼 현역 최다승(138승)과 한국시리즈(KS·7전4선승제) 7회 우승 등 누구보다 화려한 길을 걸어왔다.

이토록 화려한 경력을 지녔음에도 올해 KS는 배영수에게 무척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그는 삼성 라이온즈 시절(2000시즌~2014시즌) ‘푸른 피의 에이스’로 불렸

다. 다른 팀 유니폼을 입은 배영수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5시즌부터 삼성을 떠나 한화 이글스를 거쳐 지금은 두산 유니폼을 입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KS는 삼성을 떠난 뒤 경험하는 첫 가을야구 무대라 감회가 새롭다. ‘삼성이 아닌 다른 팀에서 우승하는 상상을 해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상상 못 해봤다”라며 “그래도 KS 승률이 7할”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10차례 KS 무대에서 7번 우승을 경험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배영수

두산의 정규시즌 우승에 기여한 바가 작지 않기에 통합우승으로 행복한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정규시즌 내내 21일을 제외하고는 1군에 머물며 후배 선수들의 멘토 역할을 충실히 했고, 김태형

두산 감독도 그 가치를 인정했다. 9월 24일 창원 NC 다이노스전 11회말 마운드에 올라 1사 1·2루 상황에서 1.2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은 장면은 배영수의 2019시즌 하이라이트나 다름없다. 이때 기록한 무승부 하나가 정규시즌 우승에 결정적으로 작용해준다.

KS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배영수는 “7차례 우승했을 때 나는 즐기진 못했다. KS는 보너스게임보다는 프로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라고 돌아봤다. 큰 무대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수반한다는 베테랑의 조언이었다.

잠실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